

# “새로운 악역 표현에 공 들였죠”

### 최근 종영한 SBS ‘그녀로 말할 것 ...’ 조현재, 사이코패스 연기 눈길 “강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 ... 남상미와 호흡 “누구보다 편안해”

“강찬기는 한마디로 범죄자잖아요. 그런 폭력범을 미스터리 장르로 표현한다는 게 참 새로웠어요.”

최근 종영한 SBS TV 토요극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에서 국민 앵커이자 폭력 남편인 두 얼굴의 강찬기로 변신, 극악무도함을 연기한 배우 조현재(38·사진)를 2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만났다.

조현재는 2015년 SBS TV 드라마 ‘유평이’에서 이미 한 번 악인 연기를 보여준 바 있지만, 이번 찬기 역은 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한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주말극이지만 평일 미니시리즈처럼 호흡이 빠른 작품이라 기존 주말극과 전혀 다른 색을 보여준 것 같아요. 게다가 강찬기, 정말 특이한 캐릭터였죠. 완벽주의자인데, 그 완벽함에서 오는 결핍 등 인격장애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표현하는 데 공을 들였어요.”

그는 그러면서 “무조건 야망을 위해, 또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전형적인 악당이 아니라 새로운 악역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결점이 너무 센 캐릭터라 연기하기 전에는 부담도 없지 않았는데 호흡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재는 또 강찬기가 국민 앵커인 점을 고려해 아나운서들을 직접 취재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앵커 흉내를 내는 것 같은 연기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또 지하 오디오 룸에만 들어가면 돌변하는 강찬기의 눈빛과 대사 톤을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죠. 제 얼굴이 예전에는 이런 캐릭터를 할 이미지도 아니었고 많이 한 적도 없는데 잘했다고 봐주셔서 배우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2000년 CF 모델로 데뷔한 조현재는 영화 ‘스캔들’, ‘GP506’, ‘여배우는 너무해’와 드라마 ‘러브레터’, ‘햇빛 쏟아지다’, ‘구미호 외전’, ‘사동요’, ‘49일’, ‘광교천재 이태백’, ‘제왕의 딸, 수백향’을 통해 한류스타로 거듭났다.



그리고 지난해 3월 5년 동안 교제한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와 결혼했다. 신혼에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으로 사는 그는 강찬기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웃으며 “사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제일 싫어할 남자 아니냐. 그야말로 폭력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조현재는 그러면서 “이번에 ‘누구보다 사이코패스 같다, 소시오패스 같다’는 소리를 들 때마다 연기자로서 참 좋더라”며 “앞으로도 연기할 날이 많은데 한 가지 이미지에만 치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종족시켜 드리고 싶다. 물론 이번에 팬 중에서는 제가 이런 파렴치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싫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 말했다.

조현재는 이번엔 함께 호흡을 맞춘 남상미, 김재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편안했다”고 팀워크를 자랑했다.

“남상미 씨는 여배우로서 예쁜 모습만 보일려 한 다거나 하는 그런 점이 전혀 없고, 옆집 아줌마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웃음) 김재원 형 역시 편안하고 다정다감한 형이죠. 이게 유부남, 유부녀들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 아닐까 싶네요. 하하.”

그는 종영 무렵 불거진 일본 드라마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연기에만 몰두해있다가 끝에 이런 일이 터지니 안타깝다. 좋은 해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형수와 변호사, 두 여자 영혼이 바뀌었다

### tvN ‘나인룸’ 6일 밤 첫 방영 김해숙·김희선, 1인 2역 도전

재심 청구 상담 중 60대 사형수와 30대 변호사, 두 여자의 영혼이 바뀐다.

이 초자연적 현상은 사형수 장화사에게는 하늘이 준 기적이겠지만, 변호사 을지해이에게는 어이없는 죽음의 선고와 닮았다.

과연 해이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장화사가 영원히 해이의 몸을 차지하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자신을 사형수로 만든 이들에게 복수를 실행할까.

오는 6일 밤 9시 처음 방송할 tvN 새 주말극 ‘나인룸’에서는 인생이 뒤바뀐 두 여자의 치열한 생존 게임과 그 안에서 싹트는 특별한 우정과 각자의 성장기가 긴장감 넘치게 그려질 예정이다. 을지해이는 배우 김희선이, 장화사는 김해숙이 연기한다.

김희선은 2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1인 2역을 처음 해본다. 변호사 역할도 처음”이라며 “도전하는 기분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김해숙 역시 “대본을 보니 대단히 매력적인 스토리였다”며 “1인 2역이 흥미로워 흔쾌히 출연



김희선·김해숙

했지만, 생각보다 연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 김희선의 평소 행동 패턴을 유심히 살펴 연기에 녹였다. 실제로도 김희선과 영혼이 바뀌었으면 한다. 저렇게 예쁜 외모를 가지고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입담을 자랑했다.

드라마 연출은 ‘아가씨를 부탁해’, ‘빅맨’, ‘순정에 반하다’를 연출한 지영수 PD가, 대본 집필은 ‘불꽃속으로’, ‘장사의 신-객주’ 등을 쓴 정성희 작가가 맡았다.

/연합뉴스

# 존경받는 회사가 되는 법 ... ‘사장님이美쳤어요’

### KBS 1TV 7일 오전 방영

KBS 1TV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美쳤어요’ <사진>를 방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장님이美쳤어요’는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된 10개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직원들 우선시하는 회사가 어떻게 성과를 더 낼 수 있는지 비법을 공개한다.

청년 구직자들을 겨냥해 웹드라마 형식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최고경영자(CEO)의 미니 례치멘터리(강연과 다큐멘터리의 결합) 코너도 마련된다.

도경환, 이정민 아나운서가 MC를 맡고 개교



우먼 김효진, 개그맨 이상훈, 방송인 김형규와 서유리가 패널로 출연한다.

첫 방송에서는 온라인 교육전문 기업 ‘휴넷’과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시리얼을 생산하는 ‘씨알푸드’를 소개한다.

오는 7일 오전 10시 5분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차돌래 부인의 사랑 40 1박 2일	30 930 MBC 뉴스 55 제 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	10 좋은아침
[10]	00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 4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재)		30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10 여우각시별(재)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12]	00 KBS 뉴스 10 2018 TV는 사랑을 싣고(재)	20 회사 가기 싫어	00 MBC 뉴스 20 진짜사나이 300 스페셜	30 SBS 뉴스 40 정글의 법칙(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특집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50 오늘의 탐정(재)		50 미운 우리 새끼 1~2부(재)
[2]	45 전국노래자랑(재)		00 내 뒤에 테리우스(재)	
[3]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하나뿐인 내편		00 SBS 뉴스 3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4]	05 시사기획 창(재)		20 MBC 뉴스 35 전지적 참견 시점 1~2부 스페셜	15 흥부외과·심장을 훔친 의사들(재)
[5]	00 KBS 뉴스 10 동물의 왕국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오늘의 탐정		00 흥부외과·심장을 훔친 의사들(재)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회사 가기 싫어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30 알라라 뿌우(재)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일본 료칸 속으로 - 3부 끝없는 진화>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낙지삼겹살새우 볶음, 낙삼새 볶음밥>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6:20 세계테마기행 <내 인생에 꼭 한번은 아이슬란드 3부 할로 오로라 캠핑>	12:00 EBS 정오뉴스	17:30 꼬마버스 타요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1~5
07:30 꼬마버스 타요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30 미니특급대 X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 -부모성적표 스페셜(재)	19:50 메디컬 다큐-7요일(재)
08:45 알라라 뿌우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09:00 엄마 까투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가을섬,추차도 3부 가을로 통하다, 나바론 하늘길>
09:30 원더볼스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극한직업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초대석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일(음 8월 24일 戊辰)

子	36년생 한 시름 놓게 될 것이니 부담감 갖지 말라. 48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60년생 신중히 실행해야만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72년생 불필요한 것이 상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리라. 84년생 지나치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7, 31	午	42년생 가까이에 와 있으니 대응할 준비를 하자. 54년생 힘든 만큼 비례해서 향후의 결실은 알할 것이다. 66년생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78년생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90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서전연 다른 국량이 된다. 행운의 숫자 : 48, 80
丑	37년생 드디어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49년생 사세부득이 그렇게 됨을 알라. 61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73년생 지속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질 것이나, 85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 버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47	未	43년생 진행되고 있는 대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67년생 재구성하여 종합할 수 있는 여유와 기량이 절실하다. 79년생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4, 98
寅	38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50년생 형세의 기본 노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62년생 향심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안정을 구가하는 평안함이 보인다. 86년생 정성과 속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47, 01	申	44년생 결과가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크다. 56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으니 주마가편하라. 68년생 부담감을 버리고 임하는 것이 맞다. 80년생 파생되는 형세까지 다각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다. 92년생 윤곽이 잡히면서 실체를 접하는 길목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53, 56
卯	39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51년생 난감해 하는 양태이다. 63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생각 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75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느니라. 87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고 마음 또한 편안하리라. 행운의 숫자 : 60, 04	酉	45년생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57년생 반복적인 동세의 연속이므로 새로운 것이 없다. 69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81년생 과거에 미처 몰랐던 원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다. 93년생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2, 46
辰	40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니 모든 미련을 버려라. 52년생 시작이 좋다고 결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다. 64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지 말라. 76년생 발전적인 이동수이다. 88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91	戌	34년생 국세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느니라. 46년생 가까움 이와의 사이에 발전적인 일이 생기겠다. 58년생 리듬을 잘 타야만 무탈하다. 70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82년생 절차대로 이행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94
巳	41년생 기민한 감각을 통하여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특별히 쟁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65년생 간발의 차가 장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요체가 되고야 말 것이다. 77년생 총동원해야 성사 시킬 수 있다. 89년생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4, 52	亥	35년생 강구한다면 능히 방책을 찾게 되리라. 47년생 좋은 말은 원래 듣기에 거북한 법이다. 59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83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5, 1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